

인천 남동구

남편 병원 공동 매입... 이정현 재테크 '억' 소리

이정현은 3000대 1의 치열한 오디션 경쟁률을 뚫고 1996년 개봉한 영화 '꽃잎'의 주인공 소녀 역으로 발탁돼 데뷔했다. 믿기지 않을 정도의 놀라운 연기력으로 대중상·청룡영화상·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에서 신인상을 휩쓸며 주목받았다. 이후 1998년 KBS 드라마 '야망의 전설', SBS 드라마 '어느날 갑자기', 1999년 영화 '침향'에서 연기 경력을 이어 갔다.

이름 석 자를 대중에 각인시킨 것은 가수 활동이었다. 1999년 10월 1집 앨범 'Let's Go My Star'의 타이틀곡 '와(WA)'로 일약 스타덤에 올라 전국에 테크노 열풍을 일으켰다. 동양적인 컨셉을 활용한 부채춤·손가락 마이크 등 과격적인 퍼포먼스는 대중의 뇌리에 깊게 박혔다.

이 곡으로 가요 시상식을 휩쓴 뒤 후속곡 '바퀴'로 독특한 콘셉트를 이어 갔다. 이후 2000년 2집 '너', 2001년 3집 '미쳐',



2002년 4집 '아리아리', 2010년 7집 '수상한 남자', 2013년 스페셜 싱글 'V' 등을 연이어 성공시키며 국내 정상급 가수로 도약했다. 시대를 앞서갔다는 평가 함께 대중으로부터 '한국의 레이디 가가'라는 별칭을 얻었다.

2008년 연기자로 7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 그는 KBS 대하드라마 '대왕 세종'에서 신빈 김씨 역으로 출연했지만 상대결

절로 중도 하차하게 되는 아픔을 겪었다. 휴식을 취한 후 중국에 진출해 한류스타로서 많은 인기를 얻었다. 2010년 CCTV 대하드라마 '공자'에서 위나라 왕후 난쯔(南子) 역으로 출연했고, 이듬해 박찬욱·박찬경 감독이 연출한 단편영화 '파란만장'에서 인상적인 무당 연기를 선보였다. 이 영화는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단편부문 1등에 해당하는 황금곰상을 수상하며 주목받았다.

이름 발판으로 배우 활동에 박차를 가했고 '범죄소년'(2012)·'명량'(2014)·'성실한 나라의 앨리스'(2015)·'스플릿'(2016)·'군함도'(2017)·'반도'(2020)·'죽지 않는 인간들의 밤'(2020)·'헤어질 결심'(2022)·'리미트'(2022) 등 규모와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작품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히 '범죄소년'에서 16살 아들을 둔 33살의 철부지 미혼모 장효승 역으로 출연

해 대중과 평단으로부터 인정받았으며 영화 '명량'에서는 정시 여인 역으로 1761만 명을 동원하며 천만 배우에 등극했다.

노 개런티로 출연한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에서는 수남 역을 맡아 열심히 살면 행복해질 줄 알았던 파란만장한 인생 역경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며 그해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다.

'반도'에서는 여주인공 민정 역으로 출연해 인상적인 액션 연기를, 지난해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에서는 주인공 해준(박해일 분)의 아내 정안 역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정현 가수

파인트리엔터테인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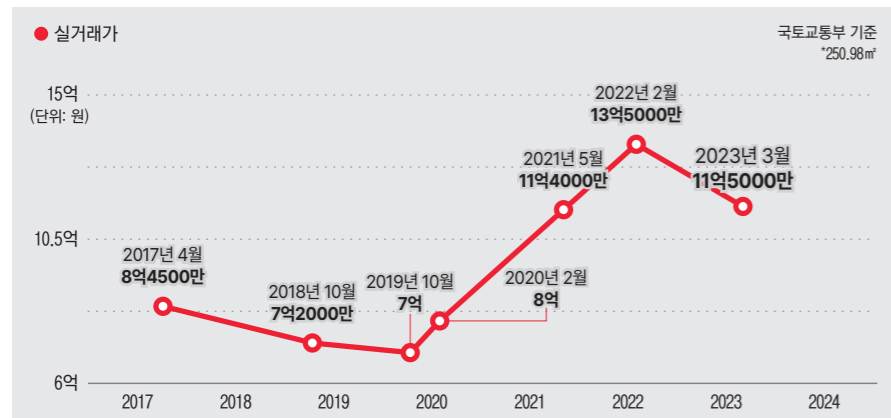
출산 4개월 만에 영화 '리미트'로 복귀해 아동 연쇄 유괴사건 피해자 엄마 대역의 경찰 소년 역으로 뜨거운 모성애를 표현했다.

5094.34㎡(약 1541.03평)·본관 지하 1층~지상 8층·별관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남편 박씨가 개원한 연세 와병원이 입주해 있다. 81개 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병원의 이름은 이정현의 히트곡 '와'를 넣어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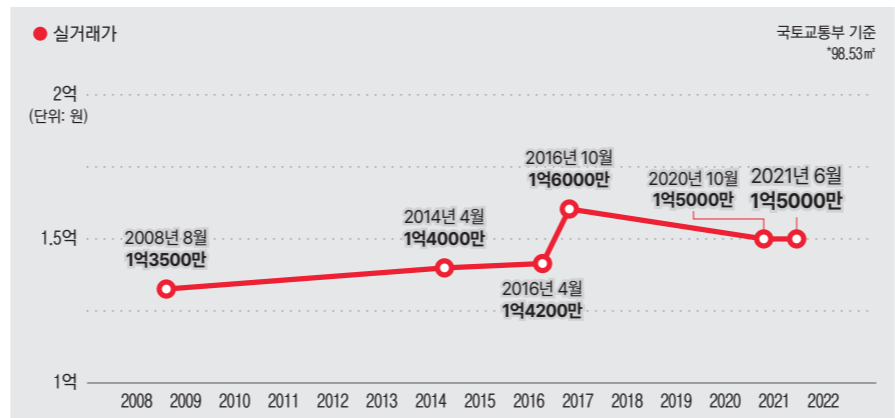
앞서 이정현은 2018년 3월 43억6000만 원에 매입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건물을 2021년 5월 70억 원에 매각해 3년 만에 약 26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겨 부동산 투자를 잘한다는 평을 받았다.

대지면적 1043.9㎡(약 315.77평)·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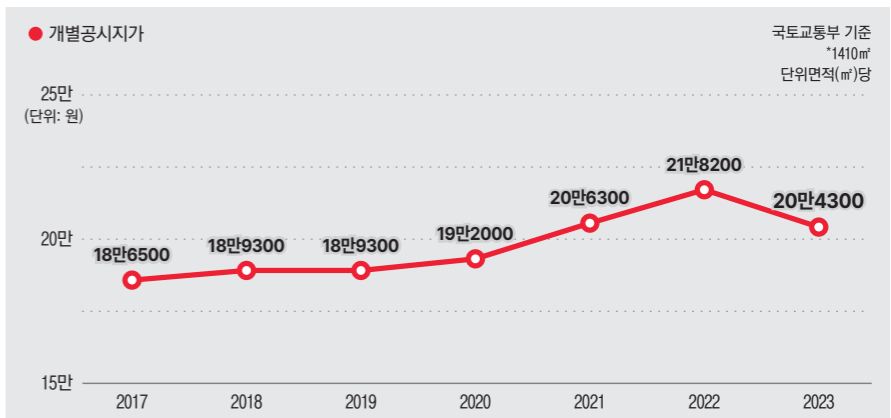
에코메트로10단지화곡에그린(인천 남동구)



구월와이드빌(인천 남동구)



토지(인천 남동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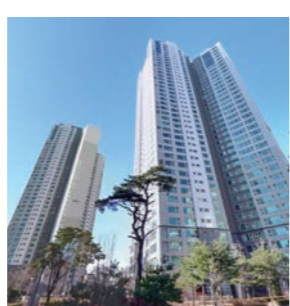
박남춘 전인천시장

박남춘 전 인천 시장은 제물포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웨일즈대 대학원에서 교통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합격 후 해양수산부에서 공직을 시작한 그는 부산지방해운항만청 해무·항무 담당, 해운항만청 개발·운항·예산 담당, 부산지방해운항만청 총무과 과장, 해운항만청 항문물류과 과장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해양수산비서실 행정관·해양수산부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감사관실 감사담당관·국립해양조사원 원장 등을 지냈다. 2000~2001년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참여정부 인수위원회 전문위원·대통령비서실 국정



전인천시장

상황실장·인사수석 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 비서실 근무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 비서관(전 대통령)과도 인연을 쌓아 이후 정치적 동지로 함께 활동했다. 인천 남동갑에서 19·20대 국회의원에 연이어 당선됐고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유정복 인천 시장을 누르고 민선 7기 인천 시장에 당선됐다.



황진희 현경기도의회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황진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진해여고와 경남대 화학과를 졸업했다. 부천시 여성연합회 회장·민주평통 자문위원·부천시 위생보건위원·부천시의회 시의원 등을 지냈다. 2014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부천시의회 비례대표 의원에 출마해 당선됐고 2018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도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 황 의원은 10대와 11대에 걸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경기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치



현경기도의회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고 있다. 2022년 전국 최초의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제정,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개정 등 다양한 입법 활동과 '사립 유치원 애로사항 청취 정담회' 등을 통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는 등 경기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국환 현인천연수구의회구의원

김국환 인천 연수구의회 구의원은 인하대 정책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인천 연수경찰서 시민경찰연합회 회장·인천 연수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인천 청학역 신설 추진위원회 상임대표·한국실버경찰봉사대 연수지회 자문위원·인천 스포셜올림픽코리아 이사 등을 지냈다. 2021년 7월 '2021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시상식에서 의회 발전공로 대상을 수상한 그는 같은 해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하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현장이 답. 시민 의견 경청 반영이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쳤다. 또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



현인천연수구의회구의원

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을 분리·신설해 예결위의 재정 전문성을 강화했다. 인천시 살림살이를 꼼꼼히 챙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인천시 균형 발전에 힘썼다. 특히 인천시 연구구영락원 정상화에 기여한 공로가 컸으며 투철한 사명감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힘쓴 공로를 높이 평가 받았다.



맛있는 우리동네 부동산

군포1·군포3·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최종 심의 통과

경기도 군포시

군포시는 4일과 7일 당동 및 금정동 일원 3개 구역의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지정을 위한 마지막 법정 절차인 도시·경관공동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조건부 가결'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정비계획 인안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 지난해 11월 해당 구역의 주민들로부터 입안 제안된 △가칭)군포1구역 재개발사업 △가칭)군포3구역 재개발사업 △가칭)금정3구역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군포시 관계자는 "입안 제안된 정비계획(안)에 대한 관계 법령 및 상위 계획(2030 군포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 등과의 적정성 검토 및 관련 기관 협의 절차와 한국감정원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검증, 주민 의견 청취(주민 설명회·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군포시청.

군포시

그러면서 "향후 도시·경관공동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조건 사항의 보완)가 완료되면 △군포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을 각각 최종 확정하고 고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하은호 시장은 "이번 3개 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으로 도시 인프라 확보 등 생활기반시설 정비와 원도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신속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기를 바라며 군포의 도시 환경 및 품격이 한 단계 더 상승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수도권 아파트 공급 9년 만에 최저... 수원·용인 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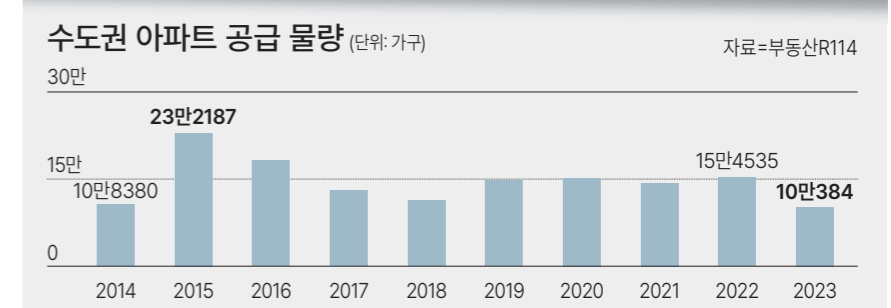
수도권

올해 수도권 아파트 공급이 10만여 가구에 안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이후 9년 만에 최저다. 시장 불확실성·공사비 문제 등으로 '확실히 될 곳'이 아니면 사업 주체들이 공급을 꺼린 것이 이유로 꼽힌다. 동시에 내년부터 입주량도 크게 줄어 새 아파트 희소성은 더 커질 모양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12월 초까지 수도권 아파트 공급량(임대 제외)은 10만3847가구로 조사됐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10만 가구 중반 정도가 올해 최종 공급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4년(10만8380가구) 이후 가장 적은 물량이다. 지난해(15만4535가구)와 비교해도 약 35% 감소했고 이전 5년 평균(14만3315가구)과 비교해 봐도 30% 정도 줄었다.

특히 작년 대비 경기인천 지역의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2기 신도시 등 택지지구 분양이 줄어든 게 이유로 꼽힌다. 경기도는 2022년 10만3747가구가 공급됐지만



올해 현재까지 6만2313가구가 시장에 나와 약 40% 줄었다.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인 수원과 용인도 각각 1837가구와 1518가구 공급에 그쳤다.

인천도 같은 기간 2만2623가구에서 1만4028가구로 공급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2만4466가구·2만4043가구가 공급돼 감소 폭이 크지 않았다.

향후 입주 물량도 확 준다. 내년 수도권 입주량은 13만3675가구로 올해보다 약 1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어서 2025년 11만4046가구·2026년 5만5071가구로 폭 떨어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 인허가(올해 1~10월)도 9만1942가구에 그쳐 작년 대비 13% 줄어 향후 공급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